

# “연봉 삭감” vs “연봉 보전” ... MLB 노사 대립

메이저리그(MLB) 개막이 연기된 가운데 선수들의 연봉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시즌이 단축될 경우 구단은 연봉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지만, 선수노조는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대립 불씨가 생긴 셈이다.

1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구단주 회의를 거쳐 남은 시범경기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시즌 개막도 적어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이고, 2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주 정부가 나오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4월 중순 개막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MLB 사무국도 팀당 162경기를 모두 치른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전제 속에 일정 조정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5월에 시즌이 시작된다면 물리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 가뜰이나 빡빡한 일정이라 손을 댈 만한 여지가 많지 않은 탓이다. 현지 언론들은 속속 “시즌 단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즌이 단축되면 MLB 매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선수들의 연봉이나 인센티브 조건 등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비상이 걸렸다. 미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이미 사무국과 노조 관계자들이 만나 이 문제

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평행선이다.

노조는 “야구는 샐러리캡과 같은 연봉 상한선이 있는 종목이 아니며, 이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은 총 매출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드 샐러리캡이 있는 리그의 경우 매출과 샐러리캡이 연동되고, 샐러리캡이 연동이 되면 당연히 선수들의 연봉도 그에 비례해 깎일 수밖에 없다.

미 프로농구(NBA)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MLB는 샐러리캡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사무국과 구단들은 이에 난색이다.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 임한 한 구단 관계자는 “수익 없이 운영하면서 팀들이 전체 급여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불가항력이라고 반박했다.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노사가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그 단축이 결정된 것도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162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는다면 결국 노사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는다. 연봉을 깎는다면 얼마를 깎아야 할지도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 손흥민 복귀에 토트넘 팬들 환호

손흥민의 복귀 소식에 토트넘 홋스퍼 팬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6일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영국 'HITC'는 이날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복귀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잔여 시즌에 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아스톤 빌라전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을 당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골절 부위 접합 수술을 받은 그는 이달 초 런던으로 돌아가 2주 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영국 '이브닝스탠다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이 자가 격리를 마치고 이날 토트넘 훈련장으로 복귀했다. 빠르면 4월 중 복귀도 가능할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주 간 일정을 중단했다. 4월 초 일정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정 중단의 장기화도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 자체만으로도 기뻐했다. 만약 시즌이 늦게라도 재개된다면, 손흥민이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ITC가 전한 팬들의 반응 대부분이 “마침내 기쁜 소식이 생겼다.”였다. @sridhar\_kiran이란 아이디의 팬은 “만약 시즌이 다시 시작하면 손흥민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을 볼 수 있게 됐다.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뻐했다. @victorooro2는 “그의 복귀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MLB닷컴 “김광현이 STL 5선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5선발에 올려놓았다. 시범경기 활약을 반영한 결과다.

20일 'MK스포츠'에 따르면 MLB닷컴은 전날 30개 구단 선발전 순위를 매겼다. 세인트루이스는 전체 10위에 올랐고, 김광현은 잭 플래허티(25), 다코타 허드슨(26), 애덤 웨인라이트(39), 카를로스 마르티네스(29)와 함께 선발전 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오른 팔꿈치 힘줄에 이상이 생긴 마이클스 마이콜라스(32)는 예정된 개막일이라면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개막 연기로) 준비할 기간이 생겼다. 그렇기에 선발전에 이름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김광현은 시범경기 중단 전 다양한 구종과 침착함을

선보이며 강렬한 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광현은 시범경기에 4차례 등판하여 8이닝 5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펼쳤다. 현지 언론은 물론 상대팀 감독, 선수까지 칭찬할 만큼 투구 내용도 빼어났다. 이 때문에 기존 2선발인 마이콜라스가 합류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이다. 마이콜라스는 2월 부상을 당해 4월 중순 복귀가 예상됐지만, 개막이 5월 중으로 연기되며 시즌 처음부터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블리처리포트'도 14일 “김광현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만한 자격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으며 '야후 스포츠'도 같은 날 “김광현은 선발 로테이션의 확실한 최종 승리자 후보이다.”라며 김광현의 5선발 진입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